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12℃ 목포 1/12℃ 여수 3/11℃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29호 1판 2010년 3월 22일 월요일

단기 4343년 (음력 2월 7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이번엔 당원명부 시끌

민주 박준영 "조작 의혹"에 주승용 "유출 의혹"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을 1개월여 앞두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당원명부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주승용 의원이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맞불을 놓고 나왔다. 〈관련 기사 3면〉

경선이 주민여론조사와 당원 직접투표(체육관 경선)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인 만큼 당원 확보가 승패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당원명부 조작 및 유출' 의혹은 그 실체 여부에 따라 경선판 자체를 흔들 만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21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전남도당 당원명부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공식제기하며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박 지사는 "지역별 당원을 점검하던 중 시·군 지역위원회와 전남도당이 가진 당원 명부가 다르게 돼 있는 등 당원 명부가 조작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수 민주당원들이 지역당원 명단에서 삭제됐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도당에 보고한 당원명부에서 상당수의 당원(대의원 포함)이 삭제된 의혹이 있다"면서 "특히 일부 지역은 지역에서 올린 당원 숫자보다 50%나 더 많은 당원이 등록돼 있다는 설도 지역에서 파다하게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박 지사 측은 "당원투표 50%를 반영하는 이번 경선에서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부정확한 당원명부로 경선을 치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중앙당이 당원조작 여부를 신속히 조사, 진상을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도당위원장인 주승용 의원과 전남도당 등이 발끈하고 나섰다. 주 의원은 "당원은 인터넷, 지역위원회, 도당, 중앙당에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시기나 경로 또한 다양하고, 당원 수가 시기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다"면서 "(의혹 주장은) 당무에 최소한의 관심도 없다는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특히 "박 지사가 당원 명부 조작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는 당원명부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주장"이라며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당 관계자도 "지난해 전남도당에서 탈당자, 사망자 등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탈당자를 제외한 것을 오해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본부 조직 담당 강기정 의원도 이날 "중앙당이 전남 당원 원부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박준영 지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했으며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임동욱·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원재료 부족으로 공장가동이 전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 1공장. 평소 같으면 타이어 반제품(그린 케이스·Green Case)을 싣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수레들이 21일 오후 하릴없이 널려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가동중단

노사갈등에 채권단 지원 외면…광주·곡성 1공장 원재료 바닥나

금호타이어 광주1공장과 곡성1공장이 멈춰섰다.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계속되자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외면, 원재료인 천연고무를 구입하지 못해서다.

금호타이어는 21일 "노조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채권단이 긴급 운영자금 집행과 신용장 추가 개설을 미루면서 원재료가 바닥이나 이날부터 광주1공장과 곡성1공장에 대해 휴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공장은 천연고무가 많이 투입되는 트럭·버스용 대형 타이어를 생산하는 곳이다.

채권단은 당초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전제로 1천억원의 긴급 신규자금과 3천만달러 규모의 신용장 개설 지원을 결정했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31일까지 이들 공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원재료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는 50%만 가동할 계획이다. 채권단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다음달 21일부터 정상 가동한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는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동남아 고무시장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 사태까지 벌어짐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시장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기게 됐다. 특히 이들 공장은 전체 생산라인 중 절반 가량이나 돼 생산직 근로자 800여명이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사측이 예고한 정리해고 예정일(4월2일)을 앞두고 휴업에 들어가자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광주·곡성 1공장 전면 가동 중단으로 791명이 자연 휴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사측이 파업을 유도해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달 25일께 광주지법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과 이달 말 채권단과의 양해각서 체결, 다음달 1일 민주노총 총파업, 2일 정리해고 시한 등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노사협상의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알 림

입학사정관제의 모든 것

전문 교수진 참여 3월27일 설명회

201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비중이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각 대학이 적용할 입학사정관제의 공통 기준이 마련되는 등 지난해와는 다른 제도들이 도입되는 만큼 차별화된 맞춤형 입시전략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광주일보사는 글로벌 영재학원과 공동으로 전남대학교,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김성호 KAIST 수리과학과 교수와 이상천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부의장, 박동혁 한국가이던스 자기주도학습 센터 소장, 김수용 KAIST 물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입학사정관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문 교수진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심층구술면접의 사례와 대비안, 중요 평가요인, 진로 진학 탐색의 이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유·불리한 학생의 사례 등이 소개됩니다.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와 학교장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3월 27일(토) 오후 2시
●장소 : 전남대학교 용봉문화관 시청각실(4층)
●강사 : 김성호 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이상천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 부의장
박동혁 한국가이던스 자기주도학습센터 소장
김수용 KAIST 물리학과 교수
●대상 : 광주·전남지역 고교 진학담당교사 및 학교장
●문의 : ☎010-3080-3693, 이메일 dd811@daum.net

光州日報社·글로벌영재학원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교육위원들이 사교육 보호?

교습시간 단축 개정안 전남도교육위 의결 연기

전남에서 오는 5월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던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이 사실상 중단됐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 209회 임시회에서 도 교육청이 교습시간 단축을 골자로 상정한 학원 운영·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 의결 여부를 다음회기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1일 밝혔다. 다음회기는 4월 10일께 열릴 예정이어서 도 교육청이 오는 5월부터 시행하려던 학원 교습시간 단축 계획〈광주일보 3월 15일자 1면〉도 차질을 빚게 됐다.

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학원 교습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2시간 줄이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도 교육위원회와 도 의회 의결을 거쳐 빠르면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교조 출신인 김목 교육위원 등 일부 위원은 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원 관계자의 생존권 등을 이유로 개정안 의결 여부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농·산·어촌인 전남지역에서 심야시간 학원 교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제한은 오히려 고액 안방과외로 이어질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도 "학원 관계자들에게 생존권을 확보할 여유 조차 주지 않고, 무작정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현직 교육위원이 6·2선거에 출마하는 현실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학원 종사자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도 학원교습시간 단축 개정안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